

출애굽기 3장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다

1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 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 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2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7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10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게 하겠다." 11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겠습니까?" 14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 출애굽기 3장은 이집트에서 도망쳐 나온 모세가 목자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1 절에 '하나님의 산 호렙' 이라고 하는데 이 산의 이름은 19장에 가면 시내산이라고 나옵니다. 이곳은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 모세가 형 아론을 만난 곳 (4:27) 그리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곳입니다 (19장).
-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불꽃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뵈는데, 불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나중에 불기둥으로 출애굽한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은 장소가 거룩하다는 뜻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므로 그곳이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상기시키시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주실 땅을 분명하게 밝히시고 계십니다.
- 11절과 12절을 보면 모세의 주저하는 반응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겠다 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함께 한다는 말씀은 1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이 됩니다. '나는 곧 나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인데 영어로는 'I AM', 그리고 히브리 말로는 '야훼' 입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불변하시는, 창조주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이름을 요한 복음 8장 58절에서 사용하십니다.
-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에게 가서 할 말을 일러 주시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말을 하십니다. 이 말은 5장부터 모세가 이집트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 달라고 요구할 때마다 언급되는 말인데, 백성들이 풀려나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 19절부터 22절까지는 출애굽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을 치시고, 여러가지 이적들을 보여 주신 다음에 그리고 떠날 때는 이집트 사람들로 부터 물건을 받아서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4장: 하나님이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다

2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네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하였다. "지팡이입니다." 3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을 땅에 던져 보아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모세가 그 앞에서 피하니, 10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14 주님께서 모세에게 크게 노하시어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인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 하는 줄 안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온다. 그가 너를 보면 참으로 기뻐할 것이다. 20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등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다. 그 때에 모세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24 모세가 길을 가다가 어떤 숙소에 머물러 있을 때에, 주님께서 찾아 오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

- 4장 앞부분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주저하는 모세와 그를 설득하시는 하나님 사이의 대화입니다. 모세가 내세우는 이유는 이해할 만한 것들이고 하나님은 그를 자상하게 도와 주십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손에 피부병이 들고 다시 원 상태로 회복하는 이적을 통해 모세를 안심시키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속되는 모세의 이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마침내는 말을 잘하는 형 아론을 붙여 주십니다.
-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스테반 집사는 모세가 하는 말과 하는 일에 능력이 있었다고 적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을 못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인지 분명치 않지만 모세는 자신이 출애굽의 리더가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 16절에서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은 아론이 해야 할 말을 모세가 하나님에게 듣고서 알려 준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들의 역할이 말씀을 듣고 전하는 일인데 이 일이 모세를 거쳐 아론의 입을 통해 전달되는 모양입니다.
- 17절과 20절에서 지팡이가 강조됩니다. 목자의 지팡이였던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지팡이가 되어서 모세의 사역 가운데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 21절과 23절에서 하나님은 모세가 이집트의 바로에게 가서 해야 할 말과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하신다고 하는데, 5장부터 나오는 스토리에서 처음 다섯번의 이적에서는 바로 스스로가 고집을 부린다고 나오고, 여섯번째 이적부터 하나님이 바로가 고집을 부리도록 하신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때도 근본 원인은 바로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입니다.
- 24절과 25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의 리더로 쓰임 받을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잘 지켜야 하는데,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할례를 아들들에게 베풀지 않았습니니다. 아내인 십보라의 행동으로 모세가 살게 됩니다.